

모의면접 실전 방불 긴장감

고교생부터 60대까지 “채용정보 하나라도 더 얻자”

■ 전남대서 열린 ‘2006 잡 페스티벌’ 가보니

청년층 구직자들을 위해 마련된 취업박람회에 일자리를 찾는 고교생부터 60대 노인까지 몰려 심각한 취업난을 여실히 보여줬다.

광주시와 광주지방노동청 등이 8일 전남대 체육관에서 개최한 ‘2006 잡 페스티벌(Job Festival)’. 청년층 구직자들에게 취업기회와 함께 직업 및 진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행사였지만 20~30대 외에도 고3학생과 60대 노인 등이 눈에 많이 띄었다. 이날 참가자는 2천여 명.

광주지방종합고용안전센터 직업상담원 9명이 개별적 면담을 통해 면접 전략과 이미지메이킹 등을 설명하는 ‘취업클리닉’에는 상담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노동청 등이 주관한 모의면접을 통해 실전 경험을 쌓으려는 사람들도 줄을 이었다. 이들은 모의 면접관 앞

에서 실전과 다름없이 면접을 보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은 꿈틀히며 모았다.

경연대회도 성황을 이뤘다. 구직자들은 ▲취업관련 문제를 푸는 ‘취업골든벨’ ▲컴퓨터를 이용해 정보를 찾는 ‘취업정보사냥대회’ ▲2인1조로 구성된 팀이 참가하는 ‘Job Festival 퀴즈’ 등에서 힘든 구직 현실을 잠깐이나마 잊은 듯 ‘끼’를 마음껏 선보였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한국쓰리엠(주)·‘엠코리아(주)’·‘주)대유에이티’ 등 112개 기업이 인재를 찾았다. ‘한국쓰리엠(주)’ 등 23개 기업은 현장에서 입사지원서를 접수했고, 나머지 89개 기업은 온라인으로 지원을 받았다.

기업들이 구인을 희망하는 직종은 고객상담·네트워크 관리·방문교사·해외영업·매장관리·콜접수안내·운전 등 100여 종. 구인자들은 부스를

돌며 염봉 등 기업들이 내건 조건을 세밀하게 체크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기업의 참가가 거의 없었으며, 참가 기업의 제시 연봉이 너무 낮다는 등의 불만이 제기됐다. 또 현장 모집보다는 온라인 접수가 많은 것이 페스티벌의 효과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기업을 역시 구직자들은 많지만 원하는 인재가 없다고 토로해, 기업과 구직자 간 시각 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모(18·광양 모교고 3년)양은 “취업 박람회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정작 원서를 내려던 업체는 채용 계획이 불분명해 실망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페스티벌은 9일까지 계속되며, 기업들은 총 639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페스티벌에 참가한 기업들의 정보는 ‘www.srbjob.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서울대 가서 처지기보단 다른 곳서 능력 발휘하라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

“초등생 논술교육 불필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경제학부 교수·사진)은 “초등학교 때부터 논술 교육을 시킬 필요가” 전혀 없고 어릴 때는 책을 마음껏 읽고 자유롭게 생각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8일 서울 강남초등학교 등에 따르면 전 전 총장은 전날 강남초교 초등학교로 ‘한국의 미래와 교육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 특강에서 이렇게 말한 뒤 “그동안 서울대 논술 체점을 7번 해봤지만 기분 점수를 감안하면 점수 차는 2~3점이 불과했다”며 굳이 학원

에 다닐 필요가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영어 조기교육 열풍에 대해 “우리말을 먼저 가르치고 나서 영어를 익히해야 해야 진정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꼭 서울대에 보내야 자식 교육에 성공했다는 생각은 잘못되어 서울대에서 처지는 학생으로 남느니 다른 곳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전국을 균형적으로 발전하게 하는 지름길이므로 평준화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명문고를 부활시키는 것도 불균형 해소의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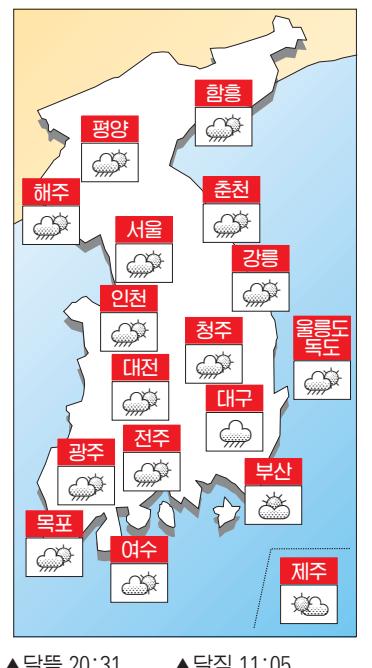
겨울 부르는 ‘빗방울’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은데 벗어나면서 구름이 많아지겠다.

11월 9일

(음 9월 19일)

◇전국날씨



날짜	10(금)	11(토)	12(일)	13(월)	14(화)	15(수)
날씨	●	●	●	●	●	●
최저/최고	6/14	5/12	2/14	5/14	6/11	3/10

민노총 광주·전남 조직 분리키로

본부장 직선제로 선출

투표에는 전체 대의원 270명 중 155명이 참가, 77.4%(120명)가 찬성했다.

민주노총은 또 오는 14일까지 전조합원들을 상대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뒤, 가결되면 15일부터 ▲노사관계 민주화 입법쟁취 ▲한·미FTA 저지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수능 광주·전남 33,966명 응시

오는 16일 치러질 200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광주와 전남에서는 3만3천966명이 응시한다.

8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2007학년도 수능시험 응시자는 광주 1만8천211명, 전남 1만5천755명 등 모두 3만3천96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광주는 639명, 전남은 756명이 각각 줄어든 것이다.

시험은 광주 30개교(시험실 705개), 전남 43개교(시험실 639개) 등

총 73개교(시험실 1천344개)에서 치러지며, 광도관은 광주 2천844명, 전남 2천914명 등 총 5천758명이 동원된다.

수험생 예비소집 및 수험표 교부는 오는 15일 대학생 및 재수생은 출신 학교에서, 검정고시·타시도 졸업생들은 광주의 경우 화정중에서, 전남은 목포·나주·순천·여수·해남·담양 고등에서 이뤄진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 자동차 ‘짝짝이 번호판’ 훈란 왜?

건교부 “봉인때문에 방법 없어”

11월부터 보급하기 시작한 새 자동차 번호판을 둘러싼 소유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새 번호판 교부가 시작된 이후 광주·전남 지역에 민원 창구에는 차량의 후면에도 가로로 긴 모양의 유럽식 신형 번호판을 달도록 해 달라는 항의가 베텔하고 있다. 앞 번호판은 기다란 신형 번호판을 달도록 하면서도 후면 번호판은 차량의 경우 기준은 번호판만 달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번호판은 그러나 자동차 본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봉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자동차 도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체 뒷부분에 봉인 장치를 부착하고 있는데, 규격이 다른 긴 번호판을 달면 봉인장치까지 통째로 손봐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번호판 조도(度)의 문제도 크다. 차량 소유자들이 개별적으로 조명 장치를 다시 단다면 차량 한대 한대마다 조도를 일일이 측정하며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그러나 자동차 본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봉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승애기자 lsb54@

파업 등 투쟁 강도 수위 높아질 듯

■ 민노총 조직 분리되면

‘민주노총 광주·전남 지역본부’(본부장 정희성·이하 민주노총)가 ‘광주본부’와 ‘전남본부’로 분리되고, 본부장은 기존의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선출된다.

민주노총은 지난 7일 광주시 광산구 쌍암동 청소년수련관에서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고, ‘민주노총 광주·전남 조직 분리’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특히 본부가 광주에 있어 여수·순천·광양 등 전남 동부권과 대불산단(영암)이 있는 전남 서부권에서 발생하는 현안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부 비판이 있었다.

전남본부 신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 운동의 질적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민주노총의 예상이다. 또 파업 등 노동계의 투쟁이 보다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전남본부는 대규모 산단이 위치한 여수·순천·광양 등에 설치될 가능성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광주시 의료안내

“아름다운 의료문화를 열어가는 최상의 의료서비스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병원”

앞선 의술, 더 큰 사랑



病院

김

内 科

成 形 外 科

产 婦 人 科

이 颜 人 科

耳 鼻 咽 喉 科

양 한 모 이 비 인 후 과

반 이 비 인 후 과 의 원

허 우 회 성 형 외 과

21 대 성 병 병 원

광 주 안 과 의 원

21 대 성 병 병 원